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미 증시, 경기둔화 우려 확대에 하락 마감

Key Takeaways

- 11월 ADP 민간고용 시장 예상 하회...3개월 이동평균 일자리 수 증가는 21년 3월 이후 최저
- 국제 유가 하락 지속...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배럴 당 70달러 하회
- 미 국채수익률 하락세 지속 vs. 경기 둔화 우려에 달리는 강세

변화요인

- **미 증시는 장 초반 금리인하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에 상승 출발하였으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 유입되며 하락 마감.** 또한 금요일 발표 예정인 노동부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망 심리도 높게 작용.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11%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달러인덱스는 전일대비 0.2% 상승. 국제유가(WTI)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배럴당 70 달러를 하회하며 5개월래 최저 기록. 한편, 뉴욕 연에서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0개월 만에 (+)를 기록. (다우 -0.19%, 나스닥 -0.58%, S&P500 -0.39%, 러셀2000 -0.23%)
- **ADP 민간고용 둔화:** 11월 ADP 민간고용은 10만 3천명 증가. 이는 10월 하향 수정된 10만 6천명과 기대치인 13만명을 모두 하회. 특히, 3개월 평균 고용은 9만 9천명으로 21년 3월 이후 최저 기록. 임금 상승 압력도 꾸준히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 **생산성 Up, 인건비 Down:** 3분기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은 5.2% 증가해 2분기 3.6%와 잠정치 4.7% 모두 상회. 이는 20년 3분기(5.7%) 이후 최고치. 반면, 노동 비용은 연율 1.2% 감소하며 2분기 2.6% 증가와 잠정치 0.8% 감소를 모두 하회. 또한 10월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는데, 비석유제품 적자 증가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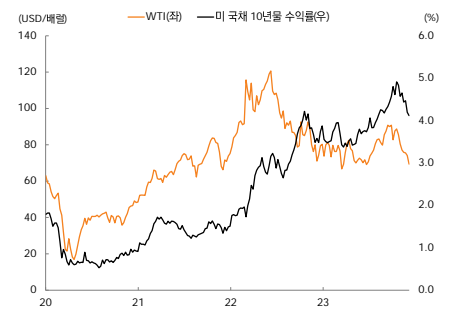
특징종목

- S&P 500 주요 섹터별로는 유틸리티(+1.4%), 산업재(+0.5%), 헬스케어(+0.1%) 등 경기 방어 섹터 상대적 강세.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에너지(-1.6%) 가장 큰 하락세 보여.
- **테슬라(TSLA, +0.3%)**는 \$25,000 규모의 저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강세. 또한 지난 11월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전월대비 14.3% 증가했다고 밝힌 점도 최근 주가 상승을 지지. **엔비디아(NVDA, -2.3%)**는 미 상무부의 제재 우려가 지속되며 약세. 한편, **애플(AAPL, -0.6%)**은 시가총액 3조 달러 회복 이후 약보합. 내년 봄 새로운 iPad 시리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유가 하락에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 ETF(XOP, -2.7%)**가 약세를 보인 반면 **글로벌 항공 ETF(JETS, +1.9%)**는 강세. **캠벨수프(CPB, +7.1%)**, **톨브라더스(TOL, +1.9%)**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인 반면, **몽고DB(MDB, -10.7%)**, **브라운포맨(BF/B, -10.4%)** 등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에 약세. **플러그 파워(PLUG, -5.9%)**는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하락

한국증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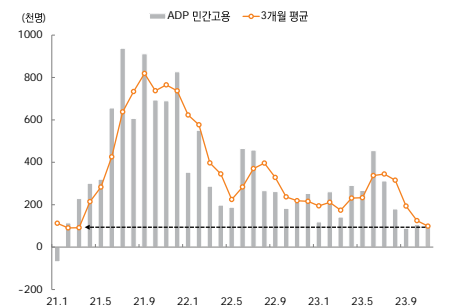
- MSCI 한국 지수 ETF는 0.6%, MSCI 신흥 지수 ETF는 0.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4.1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보합 시작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 하락. **KOSPI는 0.2%-0.4% 하락해서 시작 예상.**

그림 1. 유가와 국채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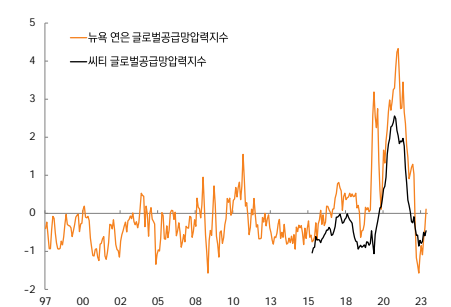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ADP 민간고용 추이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3. 뉴욕 연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Market Snapshot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7	대형 가치주 ETF (IVE)	-0.3
클린테크 ETF (CTEC)	-1.9	중형 가치주 ETF (IWS)	+0.0
소매업체 ETF (XLY)	+0.1	소형 가치주 ETF (IWN)	-0.2
온라인소매 ETF (EBIZ)	-1.1	대형 성장주 ETF (VUG)	-0.5
미국 인프라 ETF (PAVE)	+0.3	중형 성장주 ETF (IWP)	-0.3
핀테크 ETF (FINX)	+0.1	소형 성장주 ETF (IWO)	-0.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3	퀄리티 배당주 ETF (ODIV)	+0.2
클라우드 ETF (CLOU)	-1.2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2
사이버보안 ETF (BUG)	+0.3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7	미국 국채 ETF (IEF)	+0.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6	하이일드 ETF (JNK)	-0.0
바이오섹터 ETF (IBB)	+0.8	신흥국 채권 ETF (EMBD)	+1.2
로봇&AI ETF (BOTZ)	-0.8	물가연동채 ETF (TIP)	+0.1
반도체 ETF (SMH)	-0.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OD)	+0.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유틸리티	321.02	+1.4	+1.8	+2.6
산업재	915.35	+0.5	+2.5	+6.8
헬스케어	1,534.12	+0.1	+1.7	+2.7
경기소비재	1,351.44	-0.0	+0.9	+6.3
소재	508.74	-0.2	-0.7	+3.1
필수소비재	740.20	-0.2	+0.3	+1.7
부동산	237.31	-0.3	+2.7	+9.4
커뮤니케이션	230.45	-0.5	-2.8	+1.4
금융	592.41	-0.7	+0.6	+5.9
IT	3,231.75	-0.9	-1.3	+5.2
에너지	620.13	-1.6	-2.7	-5.4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38	-4.2	-11.1	Dollar Index	103.268	-0.2	-0.1
브렌트유	74.30	-3.8	-10.4	EUR/USD	1.0884	-0.0	-0.5
천연가스	2.57	-5.6	-8.8	USD/JPY	146.82	-0.9	-1.8
금	2,047.90	+0.4	-1.1	GBP/USD	1.2710	+0.7	+0.9
은	24.23	-1.1	-4.6	USD/CHF	0.8692	-0.7	-1.6
알루미늄	2,148.50	-0.5	-3.0	AUD/USD	0.6675	+1.1	+1.4
전기동	8,286.00	-0.6	-1.5	USD/CAD	1.3497	-0.5	-1.0
아연	2,428.50	+0.3	-2.9	USD/RUB	91.0267	+1.2	+2.1
옥수수	484.25	-1.4	+1.7	USD/BRL	4.8828	-0.7	-0.4
밀	633.50	+0.2	+7.9	USD/CNH	7.1242	-0.3	-0.4
대두	1,295.50	-0.7	-3.7	USD/KRW	1,305.80	+1.2	-0.1
커피	175.25	-4.6	+1.5	USD/KRW NDF1M	1,292.58	-0.5	-0.7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115	-5.0	-14.0	스페인	3.196	-5.8	-23.8
한국	3.540	-3.5	-10.0	포르투갈	2.853	-6.1	-21.8
일본	0.639	-3.1	-3.3	그리스	3.363	-4.2	-28.3
독일	2.200	-4.7	-23.2	이탈리아	3.935	-5.3	-23.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